

지역 매아리

고창군, 2억 투입 넓치 증모
구시포 · 동호 해역에 방류

고창군이 날로 고갈되어 가고 있는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15일 2억 원을 투입하여 넓치 증모 62만1000마리를 구시포 및 동호 해역에 방류했다. 방류품종은 각 어촌계에서 수렵한 희망품종을 기초로 재포획율이 높고 다수 어업인의 소득과 직결되는 경제성 품종으로 선정했다.

고창군은 날로 생산량이 감소되어가는 연안 어장에 수산 자원을 조성하고 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관내 어장환경에 적합한 수산증모를 매년 방류하고 있다.

이번에 방류한 넓치 치어는 우수한 시설과 기술을 갖춘 민간종묘 생산업체에서 전장 6.0cm 이상 크기로 배양되었으며 전문기관의 유전자검사 및 질병검사를 모두 통과한 우량 증모로 대략 2년이 지나면 성어가 되어 관내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는 올해 제29회 정읍사문화제 거리퍼레이드 참가 단체를 내달 10일까지 전국 공모를 통해 모집한다. 30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이라면 거주지나 국적 제한 없이 참가 가능하다.

정읍사문화제

거리퍼레이드 참가자 전국 공모

정읍시, 내달 10일까지 ... 자매결연도시 초청 등 불거리 다채

정읍시가 올해 정읍사문화제(제29회) 거리퍼레이드와 관련, 획기적인 변화를 꾀한다. 지난 15일 정읍시에 따르면 우선 기존에 읍면동 경연 또는 읍면동 수상팀과 초청팀 참여로 꾸려졌던 거리퍼레이드 참가 단체를 올해는 전국 공모를 통해 모집한다. 특히 전북 도내 시·군 축제에 참여했던 우수한 퍼레이드 단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했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6개 자매결연 도시도 초청할 예정이다.

공모는 '정읍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 등 정읍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제로 이달 1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접수한다. 30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이라면 거주지나 국적 제한 없이 참가 가능하다. 다만 정치적·종교적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는 등 축제의 목적과 의미에 반하는 내용을 연출하는 팀은 참가가 제한된다. 정읍시 내 참가단체에는 퍼레이드 카와 조형물 제작비 100만원과 참가 지원비로 1인 당 1만원이 지원된다. 또 정읍 이외의 지역에서 참가하는 단체의 경우 200만원이 일괄 지원된다. 또한 대상 500만원, 최우수상 300만원 등 우수팀으로 선발되는 5개 부문 14개 팀에 1,900만원의 시상

금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전국 공모를 통해 정읍시민들이 생각하는 정읍의 이미지와 정읍지역 외 다른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정읍의 이미지를 한 곳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불거리를 다양화하면서도 정읍의 특색을 담아 '정읍에서만 볼 수 있는 거리퍼레이드'로서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하겠다"며 정읍시민을 포함한 전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홈페이지(www.jeongeup.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서 대한노인회 부안군지부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 캠페인

부안경찰서(서장 이동민)는 지난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대한노인회 부안군지부 안심동행플 50여 명이 참석해 부안을 살릴사람 등 다중중점장소로 진출,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부안서는 이날 노인학대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구 및 신고 활성화를 하려고 6월 한달 간 운영 중인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플래카드를 들고 전단지 나눠주며 적극 홍보했다.

특히 유관기관과 함께 참여한 '안심동행플'은 노인 재능나눔 사업에 참여해 범죄예방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어르신들로 동년층 노령인구에 눈높이 맞춤형 범죄예방 홍보와 노인학대 유형에 따른 대처방안 및 노인학대 피해를 직접 경험했거나, 주변에서 목격했을 경우 관련 기관에 바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민 경찰서장은 "노인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 대국민 관심 유도 및 사회 전반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고창군, '우리가 동학 IN' 청소년동학캠프 개최

전국서 청소년들 30여명 참여
청소년동학신문 5호 발간 예정

고창군이 '우리가 동학 IN' 청소년 캠프를 지난 16일부터 1박2일간 책마을해리에서 가졌다.

이번 캠프에는 고창지역 청소년 뿐 아니라 전국 각 지역에서 모인 청소년들 30여명이 함께했다.

참가 청소년들은 고창동학농민혁명 진운식 이사장으로부터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학농

민군이 되어 무장기포지를 비롯해 전봉준 생가터, 선운사 마애불, 무장읍성, 동학농민혁명홍보관 등 고창의 동학성지를 꼼꼼히 누볐다.

또한 동학군 숙영을 본 딴 야영 체험, 청소년 동학 신문 제작, 청소년 동화 팟캐스트 제작하며 마음의 힐링은 물론 124년 전 세계사의 흐름 속에 동학의 태동과 진행, 소멸과 부활의 대서사시 속에서 민족의 자존과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 동학농민혁명에 있어 고창이 얼마나 중요한 지역이었던

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동학캠프 참가자들은 한편으로 '동학중군기자'가 되어, 기사와 사진을 기록하면서 보다 생생한 체험에 함께했으며, 이 내용들은 청소년동학신문 5호로 발간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고창을 비롯한 동학혁명의 공간을 직접 걷고 호흡하는 일 자체가 커다란 의미였다며 고창의 다양한 빛깔을 접할 수 있어 뜻 깊었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알콩달콩 블루베리 축제 성황리

부안 주산면, 블루베리 이용 잼 · 수확체험 등 관광객 큰 호응

부안군 주산면 갈촌리 신기 마을 블루베리광장에서 제3회 알콩달콩 블루베리 축제가 지난 16일 지역주민, 관광객 등 1300여 명이 찾은 가운데 성황리에 펼쳐졌다.

이날 축제는 배미산 블루베리 연구회 주관으로 주산면의 6차 산업 특화작목인 블루베리를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널리 알려 도시민들이 찾아오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마을 소 축제를 마련했다. 주산면에서 생산 되는 블루베리는 청정한 환경에서 빚어낸 최고의 농산물이자 노화방지에 최고인 100세 보장 건강 먹거리로 타임지

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축하공연 및 개회식을 시작으로 지역 주민의 농특산물 판매장 등 상설 전시행사와 베리 잼 · 주스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등 체험행사, 블루베리 수확 및 물놀이 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에게 좋은 추억을 안겨주고 지역을 알리는데 큰 몫을 했다.

채종남 주산 면장은 "주산면에서 재배한 고품질 블루베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농촌유학 현장 캠프어 진행 ... 25일까지 모집

전국적으로 농촌 유학 1번지로 주목 받고 있는 정읍에서 농촌유학 현장 캠프어(이하 캠프어)가 진행된다.

시는 오는 30일부터 1박 2일 간 칠보 산적소굴과 정읍 자연학교에서 농촌유학캠프어를 갖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캠프어는 정읍농촌유학협의회(대표 장보영, 이하 유학협의회)가 주최 ·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후원한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생이다. 단, 학생의 부모 또는 부나 모 등 보호자 1인이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 이달 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 중으로 오는 25일

까지 선착순(36명) 모집한다. 참가비는 1인 당 10만원이나 국비 8만원이 지원되므로 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희망자는 전화(☎010 3304 3124)로 신청하면 된다.

캠프어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인근 마을 부어를 비롯 메밀전 등의 요리체험과 감자 구워먹기, 천연염색 체험과 물총 만들어 놀기, 대나무 땃뚝 만들어 타기 등 농촌에서만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눈에 띈다. 단, 세부 행사는 현장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선관위, 군수 · 도의원 · 군의원 당선자 당선증 교부

부안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민형)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안군수 · 전라북도도의원 · 부안군의회의원선거 당선자에 대한 당선증 교부식이 15일 부안군청 5층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당선증 교부식에는 부안군선관위 위민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당선자 및 가족, 정당 관계자, 선거사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2명의 당선자에게 당선증 교부 및 위원장 인사말씀, 당선자 당선인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부안군선관위는 "이번 당선증 교부식을 통해 선거에 참여했던 후보자와 관계자들이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대립과 갈등을 씻어내고 화합의 분위기가 속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해경, 해양경찰 기강확립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조직분위기 쇄신을 위한 해양경찰 기강 확립 종합대책을 수립, 공직기강 확립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부안 해경은 다음달 31일까지 공직기강 확립 총력 대응 기간을 갖고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 특별 교류점검을 하여 금품 · 향음 수수 · 음주운전, 성범죄 · 값질 형태 · 직무태만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자체사고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렴고충신문고를 통한 내부 비리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음주운전 금지 교육, 전문가를 통한 집체교육 등을 병행 한다.

여기 에다 자체사고 중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 향음 수수, 값질 등 고질적 비위에 대한 직위해제, 원거리 인사발령, 맞춤형 복지점수, 성과상여금 제외, 관사 입주 배제 등 신속 엄정한 징계 등을 강화했다. /부안=이옥수 기자